

“유엔헌장 7장, 사전협의 없어 유감”

■반기문-아사 다로 韓·日외상 회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일본이 제출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무력사용을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장이 언급됐던 것과 관련, “사전협의가 결여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사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과 조찬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아울러 반 장관은 일본 국민들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느끼는 안보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 있는 일본 정치인들이 대북 선제공격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장관은 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되 대화는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이런 점을 일본 정부가 잘 이해해서 정책검토에도 참고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고 언급하는 전조를 생각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쌀·비료 제공 논의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한 뒤 각종 대북 제재조치는 각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취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을 대화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을 생각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사 외상은 유엔 헌장 제7장 원문문제와 ‘선제공격론’ 등과 관련한 한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만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 장관은 또 “아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더 이상 한일 우호에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아사 외상은 “아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조와 각료로서의 공적인 입장에 기초, 적절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반기문(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아사다로 일본 외상과 회동,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있는 日 정치인의 대북 공격 거론은 바람직하지 않아”

선제공격론·아스쿠니 참배 등싸고 양국간 이견 회담 ‘냉랭’

자는 전했다. 아사 외상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15’를 기점으로 한일간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의 조찬 회담은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비해 딱딱하고 업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돼 대조를 보였다.

양국이 이달 들어 동해 해역조사 문제로 신경전

을 벌인데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초강경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뒤의 만남이라 그런지 객지에서 ‘이웃’끼리 만났음에도 반가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회담은 포진밀감을 과시했던 전날 리자오 심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며 활기찬 업무적인 분위기가 시작됐다. 1시간15분 가량 진행된 회담의 대부분은 무거운 주제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데 소요됐다는 후문이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北 백남순 “6자회담 되려면 美, 금융제재 풀어라” 오늘 北 제외 전격 ‘8자 회동’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 국과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외교장관들은 28일 오후 ‘8자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 국과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외교장관들이 참가하는 ‘8자 회동’이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개최된다고 확인했다.

8자회담이 전격 합의된 것은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자회담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한국이 중국에 제안해 중국의 ‘동 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중국이 다소 변형된 했지만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8자회담에 가

담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자회담 등과 관련,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강경 대응기조가 매우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럼 참석차 27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수행하는 정성일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북한 대표단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6자회담이 되려면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된다”고 말했다.

정 부국장은 한국과 중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8·9자 회동’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 언급 없이 “그런 것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 외교장관 회동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백 외무상의 일정에 대해 정 부국장은 “말레이시아 수상을 예방할 것이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주최하는 연회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4시40분께 공항에 도착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27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백남순 북한 외무상 /쿠알라룸푸르AFP=연합뉴스

한 백 외무상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도 백 외무상에 앞서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폭격前 사전경고도 무시... 명백한 고의”

■이軍, UN 감시단 폭격 고의성 논란 증폭

레바논 남부 주둔 유엔평화감시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감시단원 3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비등하면서 이스라엘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명백히 고의적인 거남”이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이스라엘측은 이를 일축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미국도 “고의적이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섰다.

안보리, 이스라엘 규탄 의장성명 합의

그러나 이날 유엔에서 평화유지 담당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유엔측의 거듭된 항의와 폭격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유엔감시단의 순찰기지와 인접지역에 대한 포격을 계속했으며, 마침내 감시단 건물에 폭격을 맞아 비무장 감시단원들이 사망했다고 안보리에 보고했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내기로 합의했다. 제인 루트 평화유지담당 사무총장보는 안보리에서 유엔감시단 기지건물이 25일 21차례나 이스라

엘의 근접 포격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12발은 100m내에 떨어졌고, 4발은 기지를 직격했다고 보고했다.

루트 총장보는 이스라엘의 포격에 대해 레바논은 주재 유엔평화감시단인 UNIFIL은 매번 이스라엘군에 항의했고, 자신도 직접 유엔주재 이스라엘 대표부측에 전화를 걸어 “이 항의를 되풀이 하면서 포격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요원 대피 수송용 장갑차도 공격”

UNIFIL측은 감시기지와 연락이 두절되자 이스라엘군의 안전통행 보장을 받고 수송용 장갑차 2대를 들여보내 유엔요원들을 대피시켰으나, 이들 장갑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가했다고 루트 총장보는 덧붙였다.

아난 총장은 로마에서 성명을 내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유엔 표시가 선명한 유엔기지에 대한 포격과 폭격의 통합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후드 올베르트 톨리가 유엔 기지는 이스라엘의 포화에 안전할 것이라고 직접 나에게 보장했었다”고 말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선 중국, 일본,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히 고의적인 표적 공격”에 대한 “충격”을 표시했다. /유엔본부로마AFP=연합뉴스

‘평민총리’의 운동화 한 켤레

中 원자바오, 수년째 헌 신발로 지방 순찰 감동

‘평민총리’로 인기높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년 된 점퍼에 이어 이번에는 수년째 운동화 한 켤레로 지방을 순찰하는 모습이 잡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허난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허(大河·www.hnby.com.cn)는 27일 원 총리가 지난 15일 허난성 시찰 당시 신었던 낡은 신발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겸손함과 서민적인 풍모를 칭송했다.

원 총리는 이날 뤼양(洛陽)시에 도착, 쉬광춘(徐光春) 허난성

서기 등과 함께, 검정 줄무늬가 새겨진 중국산 ‘쌍룡(雙龍)’표 흰색 여행용 운동화를 신고 명진(孟津)현의 한 마을을 시찰했다.

점심 도중에 원 총리의 비서가 한 관계자에게 그의 운동화를 들고 와 “(신발장이) 또 떨어졌네. 한번 수선해주시겠어요”라고 부탁했다.

허난성에선 눈에 익은 신발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겸손성을 시찰하면서 이 운동화를 한번 수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콩=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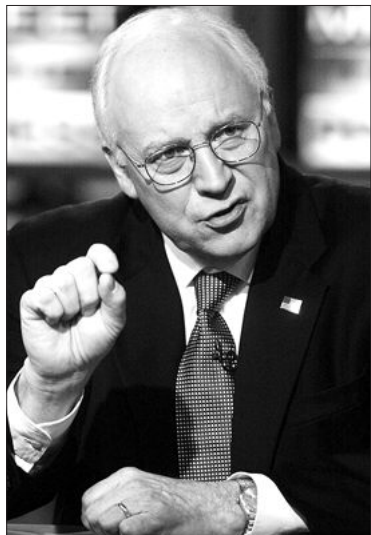
체니 부통령, 한국전 휴전협정 기념행사 참석

오늘 워싱턴 링컨기념관

제53주년 한국전 휴전협정 기념행사가 27일 오전 워싱턴 D.C. 내 링컨 기념관 앞 한국전 참전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참석,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측의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와 한국측의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온 한국전 휴전협정 기념행사 본행사에 미국 부통령이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니 부통령의 참석은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경고의 의미도



참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국제약품 기업연구소 개발 독점 제품. 사할림사당 특허받은
특 11호 오비제가 불온 품종 최고품질 수삼추출물입니다.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살아출린 들뜸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iepharm.co.kr